" 우리에게 그날이 올까? "

■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할까? 거짓이 없는 정직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나누고, 자신은 절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새로운 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복음화된 한반도 통일조국의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한국장로교회가 하나가 되는 한교단다 체제를 이루고 하나된 교회로 태어날 날이 주어질까? 희망이 없는 중에도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이사야, 세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천년 역사 속에 무수한 신앙 선배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승리했다.

우리말의 희망은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는 것이다. 소망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다. 신생아가 태어나고 조간신문을 읽고 편지통에 온 편지를 기다리는 것은 무슨 신선한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막연한 기대나 새 소식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비전을 바라고 믿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저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말씀을 세우기 위해 그는 소망을 가졌다. 그러므로 무엇을 희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희망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젊은이에게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보다 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를 물어야 한다. 명분과 욕심과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려고 부르심에 합당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시지프스의 신화에서처럼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산꼭대기에 바윗돌을 올리려는 무의미한 반복 행위는 무시간이며 역사 없는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힘들고 괴로워도 포기할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대학 입시철에 원서 들고 이 대학 저 학과 눈치보며 대학 입학하는 사람 무엇에 쓸까?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 받은 비전 따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끝까지 도전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가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에 소망의 근거를 든든히 세웠다. 모든 희망은 미래적이므로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과거에 소망을 걸고 있어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사건을 믿고 거기에 소망의 줄을 건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된다. 소망은 주어지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소망도 행동하는 믿음도 주신다. 믿음 없이는 소망도 없고 소망 없는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흔들린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므로 성도의 낙심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완성된다. 소망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상태인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소망 안에 사는 것이 신자다. 소망은 기쁨도 가져온다. 소망은 영원한 것이므로 훈장과 칭호와 업적같은 일시적인 것에 구속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이므로 상대적 가치들로 인해 불안, 초조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시간 세계에서도 참 즐거움을 체험한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소망의 원리, 근거, 목표를 교회로부터 항상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9번 정치 현장에서 낙선하고 10번째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브라함 링컨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룰 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 요셉, 모세, 다윗, 느헤미야, 바울도 모두 인내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내는 사랑의 뿌리요, 믿음의 잎사귀며, 소망의 열매다.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천국소망을 품고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기독교화 그리고 특히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받아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한국장로신문 [1460호] 2015년 5월 30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 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 Chan Yoo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Col 1:3-6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Gospel, the Word of Truth"	Pastor
* Hymn	385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서울교회 QR코드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선 교 사 강아곱·주한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비컷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리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아 망, 탕, 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싼다, 사우, 키옴,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옹,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영일, 김덕수(군선교)

제28권 제2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8년 1월14일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

■ 창 17:7-9, 마 9:35, 요 3:16-17

AD 381년에 발표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교회의 속성을 연합성, 거룩성, 보편적 우주성, 사도성의 4가지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4가지 속성은 함께 나와야 하는 것으로 하나로 연합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어야 하고,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보편성을 가져야 되며, 보편성을 갖는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대한 예수교 장로회 102회기 총회 올해의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정하고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교회는 왜 거룩해야 하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죄 사함을 받은 자 들이 모여 있는 곳 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창세기17장 7절~9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며 노아와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과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는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2. 세상은 선교 대상이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교회는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교회와 대조되어 악한 곳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교육과 증거, 곧 전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교육시키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리를 위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자 들이 위임목사, 위임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 교회의 사역은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선포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법리적인 조건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선포를 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산 속에 홀로 있지 않고 도시 가운데 있고, 마을 가운데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악으로 차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하는 일에 대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좇아가면 안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는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헬라어로 사랑은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아가페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돌보고 용서하고 베풀어주는, 무한한 헌신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엡 2:4-5). 이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엡 3:18-19). 이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롬 5:8,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아들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때 이미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놀래시거나 분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맺는 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9:15).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입니다. 케에르 케골은 부모의 사랑이 무한하고 헌신적인 사랑인 것 같으나 알고 보면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손해와 희생을 생각지 않으시고, 그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무한한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은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파하므로 이 한 해 동안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서문석 장로
Ⅱ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이관규 장로
Ⅲ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임상헌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84: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33(시 7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맡 은 이
찬 송 Hymn ·····23(2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룻기 1:15-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룻이 받은 은혜···	임원택 목사
* 찬 송 Hymn ·····449(37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 계 22:17 ·····	인 도 자
찬 송 ····· 347(382) ·····	다 함 께
기 도	백승갑 집사
성 경 ····· 계12:7-12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늘의 전쟁" ·····	설 교 자
* 찬 송 ····· 348(388) ·····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정미연 권사
성 경 ····· 삼상 17:41-54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외

설 교 ·····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Ⅰ부								
수요Ⅱ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선교회, 전도회 월례회 / 14일(주) 오후3시30분 본당
2. 호산나 찬양대 찬양연습 / 14일(주) 오후3시50분 8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공민호(신경외과)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김동건(치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4. 임원택 목사 소개(백석대학교 교수, 역사신학)
    서울대학교 철학과 (B.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미국 Calvin Theological Seminary (Ph.D.)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장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 총괄본부장
    개혁주의생명신학회 회장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총무

◆ 결 혼

1. 이민웅 군(9교구 이영조 집사, 이영자 권사의 차남)과 김은지 양(김재인 성도, 김의숙 성도의 장녀) /
   1월20일(토) 오전11시30분 엘타워 7층 그랜드홀(526-8600) / 3호선 양재역/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 장 례

1. 故 박순봉 권사 (2교구 이응선 원로장로의 부인, 이효상 집사의 모친,
   11교구 이신애 권사의 모친, 김재중 집사의 장모) / 1월11일(목) 별세, 13일(토) 천국환송예배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1,094명	285명	358명	1,737명	145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7)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월 7일	헌금	44,523,400	
"	성례비		29,300
	특별예배비		63,410
"	교회학교교육비		1,250,000
	출 판 비		1,590,000
"	소모품비		733,300
	통 신 비		49,910
	차량유지비		63,070
"	복리후생비		244,860
	수도광열비		253,900
	수선유지비		461,000
	식당운영비		688,600
"	합 계	44,523,400	5,427,350